Entertainment p/20
'후아유-학교2015' 김소현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제3203호

Sports p/21
강정호 메이저리그 첫 타점

거문도 참돔 좀 사주소

사료비 급등에 중국산 수입 급증… 재고 쌓여 어민들 한숨 p/12

어민돕기 한다던 이마트도 폭리 비판 기사 후 거래 끊어

세월호 통째 인양 9월 해상작업 착수 p/3

핵잠수함 이번엔 가능할까 p/2

홍콩 행정수반 선거안 확정 22일(현지시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행정장관 선거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이날 홍콩 입법회 건물 밖에서 오성홍기를 든 친중국 시위대(위)와 노란 우산을 든 민주파 시위대가 충돌하는 모습(위)과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을 주석이 이끄는 범민주파 의원들이 입법회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모습(아래). /연합뉴스

한국 핵잠시대 열리나

42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타결—핵잠 도입 걸림돌 사라져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시대가 열릴 것인가. 42년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핵잠 개발을 막아 온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2일 4년 6개월여의 협상 끝에 개정된 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필요할 경우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대목이다. 일정한 절차 기준에 따라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를 두고 한 잠수함 전문가는 "(핵잠 개발을 위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에서 핵잠 건조사업의 실무를 맡았다. 해군은 노무현정부 시절 핵잠 도입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은 사업단까지 구성될 정도로 진척됐지만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의 문제로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핵잠 중도 214급 잠수함 모습 /해군 제공

핵잠은 해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에게는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비대칭 무기로 평가된다. 북한 인근을 비롯한 어디든 침투해 장기간 숨어 있을 수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은 무제한 가동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오며 디젤 잠수함보다 전략적으로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며 "미국·프랑스·영국은 디젤 잠수함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국인 일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즉각 핵잠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은 핵무기 탑재 전략 핵잠 5척을 포함해 모두 10척, 러시아는 42척(전략 핵잠 16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령은 "우리가 목표로 한 핵잠에 사용하려 했던 우라늄은 프랑스 루비급이 들어가는 수준인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었다"며 "농축도 20%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 시장에서 상업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준인 95%에는 미치지 못하는 농축도"라고 말했다.

日 국회의원 야스쿠니 집단참배

일본 국회의원들이 22일(현지시간) 2차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로 참배했다.

이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이해 집단으로 참배했다.

이 모임은 봄·가을 제사는 물론이고 8월15일 패전일에도 집단참배를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봄 제사 때에는 147명, 가을 제사에는 111명이 참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에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총리 명의로 공물을 바쳤다. 대신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전날 직접 [illegible]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패전 직후 열린 전범재판에서 사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2차대전 A급 전범 14명과 전사자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는 데 그쳤다.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흑인 청년 '구금중 사망'에 항의 물결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25)가 경찰에 체포·구금된 뒤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척추 손상으로 사망하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이 볼티모어 경찰청 서부경찰서 앞에서 '프레디에게 정의를'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위), 시민들이 그레이가 체포된 교차로 인근 건물 구석에 촛불을 켜 고인을 추도하는 모습(아래). /연합뉴스

'입영신청 탈락'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하실 곳 yoons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은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입영신청을 냈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학업이나 생계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는 분들, 영문을 모르는 탈락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李 총리 사퇴하자 새누리 역공 '쓰나미'

이완구 총리의 사퇴 표명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역공 '쓰나미'가 시작됐다. 노동계 총파업과 공무원연금개혁,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한 특검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강도높은 공세를 펴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29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22일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에서 주재한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라며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실익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국적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만 역주행할 수 없다"며 "노조의 최근 행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인근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어 강화풍물시장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 시한이 9일밖에 안 남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이 14일밖에 안 남았다"며 "야야가 합의해 놓고 합의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고 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야야가 합의했고 야당이 더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국회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상설특검법이 저쪽하다며 새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제발 그런 못난 짓을 하지 말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특검법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무현정부 시절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두고 야당에 대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안 타결을 위한 '여야 2+2 회동'(당대표와 원내대표)을 제안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게이트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인양 9월시작… 작업 중 '안전대책' 필요

선체 인양과정 '업체 선정-구체이행계획(설계)-해상 진출' 順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해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을 확정했다. 박인용 중대본부장(국민안전처장관)과 유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장(해수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인양과 관련된 역할을 부처별로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체 인양과 관련된 후속조치계획은 해수부에서 맡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체 인양 과정은 크게 '업체 선정-구체이행계획(설계)-해상 진출'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일단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받아 업체 선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동안 (정부가 인양을 위해) 검토했던 자료를 넘겨 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업체가 작업 일자,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작업 설계를 마련한다. 특히 주요 목적인 시신 유실 방지도 설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해상작업은 9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선체 내 유류 제거,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 제작 등 해상 작업은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작업 돌입 이후부터는 업체가 정한 구체 이행 계획 일정에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체 인양 비용을 현장 상황에 따라 1000억~1500억원으로 예상하고,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잡았다.

해상작업이 겨울을 목전에 두고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원관 잠수명장(전 88수중개발 전무)은 "9월은 인양하기에 다소 늦은 계절이다. (세월호가 누워있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는 겨울철이 되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다"며 잠수사의 능률 저하를 우려했다.

천안함 인양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 명장은 선체가 인양돼 올라오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이 명장에 따르면 통상 인양 시기는 해당지역의 10년 치 날씨 데이터를 놓아 잠수사의 작업 날짜를 추정해 내놓는다. 이를 근거로 그는 "겨울철에 작업을 시작해도 3~4월 봄이 오고 잠수사의 작업 능률이 오르면 하반기에는 인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명장은 "실종자 유실 방지와 잠수사들의 안전"을 과제로 꼽은 뒤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실종자 유실 방지나 선체 손상 방지,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보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상문기자 actor@metroseoul.co.kr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기억의 문' 앞에서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추모 조형물 '기억의 문'에 별들 빛이 반짝이고 있다. /연합뉴스

"8월14일은 위안부 추모일"

매년 8월 14일을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이 22일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제하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렸다. 8월 14일이 추모일로 지정된 배경이다.

결의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역사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비서, 경찰버스 음란낙서' 심상정 사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비서가 최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위에 참석, 경찰버스에 음란한 낙서를 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비록 퇴근후 (비서가) 사적으로 한 일이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논란을 일으킨 비서는 전날 사의를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비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시위에 참석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에 펜으로 남자 성기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비서가 자신의 트위터에 그림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김서이기자

세월호 '측면 통째' 인양… 전례없는 도전

정부가 9월 중 세월호를 '통째 인양'하는 방식으로 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례없는 도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절단 없이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 합동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테스크포스(TF)는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투입해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체는 좌측으로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인양될 예정이다. 중단없은 실종자 시신의 유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세월호 우측면에 잠수사들이 구멍을 뚫어 내부 93개 인양점을 뚫 뒤 크레인에 와이어로 연결한다. 이어 선체를 크레인 두 대로 3m 들어 올린 후 인근 동거차도 쪽 수심 30m 지점까지 2.3㎞ 이동시킨다. 그 뒤 플로팅 독 위에 올리고 크레인 현수 후 물 위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상크레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의 1만t급 'HYUNDAI 10000호'와 삼성중공업의 8000t급 '삼성 5호'가 동원될 예정이다. 크레인은 와이어 연결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전례없는 도전인 만큼 난제는 여러 가지다. 우선 93개의 와이어가 꼬이거나 끊어질 우려가 있고 빠른 유속과 혼탁한 시야 때문이다. 또 선체가 반토막이 나거나 에어포켓 추락 등 2차 사고 위험이 공존한다.

세월호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도 불확실하다. 기술검토 TF는 12개월 동안 1000억원을 예상했다. 평균 기상상태에서 인양작업에 성공할 경우에 한해서다. 6개월에 약 5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시행착오를 겪거나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양업체와의 계약조건, 인력투입 규모, 장비 수급여건에 따라서도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서이기자

KT-1P 공동생산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국훈련기(KT-1P) 공동생산 기념식에서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signation of Park Yong Sung, Chairman of Chung-Ang Foundation, for 'Speaking Bluntly'

Chairman of Chung-Ang Foundation Park Yong Sung (74) said that he would resign from all posts amid controversy over his use of profanity. This is because of the profanity he has used regarding the forthcoming school restructuring measures. Park had prompted an uproar from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s after he threatened those opposing the board's plans to alter the university's admission process through vulgar remarks made in an email sent out to the president of CAU and some 20 professors at the university. Park had written, "It isn't good manners to not strike one's neck when one has asked for it" and that he "would strike in the most bloody and painful way possible" vowing to use his "authority over faculty appointment to take revenge" on those opposing the board's plans. 94.4% of the professors opposed to the restructuring. The professors and the students of CAU are criticizing the irresponsible action taken against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signation of the former chairman Park. CAU is scheduled to convene an emergency board of directors meeting soon to discuss Park's profanity.

/(사)고려아카데미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막말 파문' 박용성, 중대 이사장 사퇴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 두산중공업 회장이 이사장직과 회장직을 모두 사퇴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막말 파문 때문이다. 박 전 이사장은 대기업식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냈다. 이메일에는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것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고 적혀 있다. 또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는 글도 적혀 있다.

앞서 중대 교수들은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해 92.4%가 반대했다. 이메일을 보낸 배경으로 짐작된다. 박 전 이사장의 사퇴 결정을 두고 중대 교수와 학생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대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읍참마속' 용단, 국가경쟁력 강화 찬스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최근 성완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재벌들과 정권의 유착은 대다수 국민들에 정치권과 재벌을 불신하게 만드는 고질적 병폐다.

지난달 12일 취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와 전쟁'을 선포했던 이완구 총리가 39일 만에 사의를 밝히며 정작 본인이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사정(司正)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원하는 본질은 정치권의 분탕질이 아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대한민국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에 정치권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를 만들수록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대다수 국민은 한국을 부패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이고 조사대상국 177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월호와 성완종 사태의 공통점은 부정부패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부자를 염벌하는 투명한 사회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기업의 연결고리를 뿌리까지 뽑아 부정부패로부터 나라를 바로세우고 국가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업만 혁신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누구도 부패한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투명한 나라 만들기 위한 용기를 내야한다. 국민적 열망을 개혁 에너지로 전환 시키는 리더십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척결해야한다.

사회 전반에 범배한 부정부패의 불신을 없애려면 더 강력한 부패척결을 단행해야한다. 대통령이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동참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장

독자투고 '부정부패 척결' 공허하게 들린다

대통령의 말씀은 추상같다. 부정부패 척결, 사회악 제거, 정치개혁으로 사회 부조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말씀은 만결같다. 그런데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린다. 그 주체나 객체가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다. 총리는 임명되자마자 대통령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작하자마자 한 기업인이 자살했다. 총리는 물론이고 이 땅의 내노라하는 정치지도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다. 죽은 사람의 입에서는 누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줬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모두 "받은 적 없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발뺌했다. 증거가 나와도 "기억에 없다"고 한다. 증인을 들이대면 마지못해 "그런 말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길에 앞서 여당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다. 뜬금없이 여당 대표에게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당부하셨다고 한다.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한 이가 민초라지만 어리둥절했다.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의 진퇴, 민심의 향배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합의의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재중에 이야 깃 정쟁거리를 던져주신 것 아닌가.

잠모 중에 이야 깃 정쟁거리를 제공하자고 부추긴 인사가 있다면 국가의 안위와 장래를 위해 당장 내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양두구육(羊頭狗肉)식 말잔치로 정쟁에 빠져드는 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병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남기업發' 악재에 은행권 '몸살'

위험노출 채권액 증가·특혜의혹 난무

경남기업발(發) 악재에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부실화로 부담해야 할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데다 각종 특혜 의혹도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출입·신한은행 대출 1조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던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저(위험노출 채권액)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에 보증 등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모두 17곳으로 수출입은행이 5208억원, 신한은행 1761억원, 산업은행 611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521억원)과 수협(517억원), 국민(453억원), 우리(356억원), 광주(326억원), 기업(229억원), 대구은행(21억원) 등도 경남기업에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권에서는 우리종금과 SBI저축은행, KT캐피탈이 각각 49억원, 45억원, 25억원을 대출해줬고 대우증권(190억원), 유안타증권(45억원) 등 증권사 2곳도 235억원을 빌려줬다.

문제는 채권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손충당금을 쌓아둬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도 750억원 대에 달했다. 수출입은행(200억원)과 신한은행(132억원), 산업은행(107억원), 수협(62억원), 농협(56억원), 국민은행(50억원) 등 13개 금융기관은 지난 15일 상장폐지된 경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 최대 "부실우려도 상존"

금융CEO들의 특혜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남기업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구명로비를 펼친 성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성완종 리스트'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지난 2013년 9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당시 농협금융 회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을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이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부실 대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검사로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 실태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경남기업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동부건설과 대한전선, 모뉴엘 등 3대 부실기업 악재로 모두 1조원의 손실을 냈던 은행권이 올해도 부실기업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기술금융 장려 정책과 핀테크 도입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단기간 급증하면서 부실대출과 '좀비기업'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522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보다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년만에 가장 큰 규모의 증가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점을 우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의 기술금융 장려 정책이나 지원실적에 따라 순위와 인센티브를 주면 은행권에서는 실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눈치보기로 인한 급증은 대출기업의 선별작업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임종룡 "금융개혁, '구체적 방안' 필요… 시스템 안착 주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개혁은 단순히 방향성이 아닌 구체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개혁방안이 시스템으로 안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 회의와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수노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사 검사 제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업체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종의 '권리장전'을 제정키로 했다.

또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고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홍기자

롯데카드, 최범석 디자이너와 패션쇼

롯데카드는 디자이너 최범석과 손잡고 어반 라인보우 패션 위드 최범석 인 롯데월드몰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카드가 최범석 디자이너와 롯데월드몰에 입점된 10개 브랜드와 함께 고객들에게 생활 속 패션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패션쇼는 오는 25일 토요일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1부(오후 3시 롯데월드몰 10대 인기브랜드)와 2부(오후 6시-최범석 디자이너)로 나눠어 진행된다.

/박태홍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1-1561

회장 겸 발행인	남규호
사장 겸 편집인	김 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8 3
독자센터	(02)721-9861

생전보장 초점… 생보사, 新종신보험 봇물

건강수명 OECD 국가중 최하… 생활보장 요구 높아
IFRS4 도입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 낮추는데 효율적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신형 종신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노년 치료비 등의 수요와 생보사의 보장성상품 비중확대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 교보New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이 보장하는 사망보장 외에도 의료비와 생활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다. 60·65·70세 중 선택해 은퇴 후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신한생명도 이달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지난 1일 유니버설종신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KB·한화·흥국생명 등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생보사가 앞다퉈 새로운 종신보험을 내놓는 이유는 노년 치료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까닭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65세 이후 의료비로만 남성은 5137만원(생애 의료비의 50.5%), 여성은 6841만원(생애 의료비의 55.5%)을 지출한다.

평균수명보다도 짧은 건강수명도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은 81.2년이다. 반면 건강수명은 70.7세에 불과해 10년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오는 2018년 도입되는 보험회계기준 2단계(이하 IFRS4) 도입도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

IFRS4가 도입되면 저축보험료가 부채로 인식돼 생보사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다. 당장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이 58조원에서 23조원 규모로 줄어든다. 매출도 3분의 1로 감소한다.

이 때문에 현재 기준 생보사가 2018년까지 마련해야 하는 자금도 35조원에 달한다.

반면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보다 역마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보험료 규모가 가장 커 사업비도 가장 많이 책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생보사의 경우 특히 기존 고금리 확정형 저축보험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신형 종신보험을 통해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종신보험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신한금융, 1분기 당기순익 5921억

전년 동기 比 6%↑ — 신한銀, 순익은 8.3%↓

신한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59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부분의 계열사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반면 신한은행은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감소와 경남기업 충격으로 순익이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익은 3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여기에는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NIM이 전년 동기 대비 19bp 감소한 영향이 컸다.

또 경남기업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업들에 대한 추가 충당금 반영도 순익 감소에 일조했다.

같은기간 대손비용은 212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1.9%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0.34%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부실채권(NPL)비율은 0.98%을 기록하며 1% 미만으로 감소됐다. NPL 커버리지비율도 16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주요계열사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다.

신한카드의 순익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545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안정적인 매출 증가와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순이익 하락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각채권 추심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용판매 위주의 영업확대와 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에 따른 대손비용이 안정화되면서 견조한 이익 회복세를 보였다.

신한카드의 1분기 대손충당금은 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를 기록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1.91%, NPL비율 1.67%를 기록했다. 조정 자기자본 비율도 28.4%로 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한생명의 순익은 3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보험료(매출)도 1조20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순익은 전년 동기대비 82.6% 증가한 498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캐피탈의 순익도 1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신한저축은행도 각각 38억원(지분율 감안 후), 35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농협금융 봉사단 노인복지시설 사회공헌활동 실시 NH농협금융지주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점심 배식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열 사진 좌측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농협금융지주 봉사단장 이경섭 부사장. /농협금융 제공

"방카슈랑스, 인터넷으로 비교 후 가입하세요"

우리은행 전용상품 판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용 방카슈랑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2일 우리은행은 직접 방카슈랑스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방카슈랑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상품'은 설계사 채널을 이용하는 것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객 수익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에는 은행 창구에서만 판매가 돼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한 전용 상품은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7가지다.

고객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별도로 구축된 보험센터를 통해 가입할수 있다. 연금저축 보험 설계시 상세한 상품설명과 동종 유사상품과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료 납입과 계약내용 조회 등 인터넷을 통한 사후관리도 할 수 있다.

석창일 우리은행 WM사업단 상무는 "비대면 채널시장이 급속하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상품도 판매채널을 다변화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보험료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금융노조 "경남기업 사태, 엄정한 수사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경남기업 사태로 대두된 외압의 정치 관치금융을 규탄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치금융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부패한 기업인과 정치인에 의해 부당지원을 압박한 결과 금융권에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지원됐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죄 없는 금융기관과 금융노동자, 금융소비자"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4천만원대 투자로 나만의 '별장'과 '수익'도 누려라

누구나 한번쯤 꿈꾸던 개인별장을 소유하고 임대수익까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

"수익안심보장제도"

타 지역 라마다호텔 대비 반값 분양가 투자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 화제

강원도 태백에서 이미 준공된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가 파격적 분양가와 투자안정성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이미 준공되어 준공리스크가 없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격은 9,500만원대. 대출시 실투자금은 4천만원대라 소액투자자에게 부담이 없으며 최근 분양된 타 지역 라마다호텔 분양가격의 절반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도금 납부 시 8%의 수익을 즉시 지급한다.

기존 분양형 호텔은 운영사가 호텔 운영비를 제외한 뒤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 투자자가 호텔 운영 수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강원라마다호텔 & 리조트는 공신력을 갖춘 신탁회사에서 직접 수익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10년간 연 12%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4%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5년 후에는 원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환매가 가능한 조건이다.

라마다를 대표하는 상위브랜드

수익형 분양 호텔 중에 가장 돋보이는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라마다이다. 라마다는 전 세계 66개국 약 7,380개의 호텔을 운영. 세계 최다 호텔을 보유한 글로벌 호텔그룹 윈덤그룹의 브랜드로, 전 세계 모든 광공사와 연계된 예약시스템구축을 통한 뛰어난 경쟁력 체계적 시스템과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유명하다.

믿을 수 있는 운영사가 중요

호텔 운영은 라마다 한국 공식 에이전시 신하HM이 직접 운영해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로 투자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신하HM 운영사는 국내 약 50여개 호텔을 운영 및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업계최초로 공신력을 갖춘 부동산신탁에서 운영수입금을 관리해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증명하고 있다.

호텔관계자는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정선과 태백의 천만 수요를 자랑하는 레저관광지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 합리적인 분양가격 대비 호텔의 평균 숙박료도 저렴하게 책정돼, 단체관광의 특성화 호텔로 국내외 여행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며 방문 시 사전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좋은 조망과 좋은 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문의: 02-776-2000

분양형 호텔도 강원도가 대세 "연 1000만 수요"를 사실상 독점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뭉칫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호텔 객실분양 투자상품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약 50여 개의 신축 호텔들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반면 강원도는 분양형 호텔이 없어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도 연간 1,200만 명을 넘어 제주도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강원도는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성수기가 아니어도 호텔 예약률이 높아 호텔 사업의 최적지라는 평을 얻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 이후 평창, 강릉, 정선 등의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혜는 물론 개발호재가 잇따라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림픽 특구사업, 개발호재까지 합쳐져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단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비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관련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

강원도 관광객 수

이케아 우려 날린 '한샘', 성장성 건재 과시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증권가, 목표가 상향 조정

국내 대표 가구업체인 '한샘'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한 뒤 첫 분기 실적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692억원과 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이익도 29.8% 늘어난 29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엌유통 사업부문의 매출이 49.5%로 크게 늘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말 이케아가 광명 1호점을 개장한 뒤 발표한 첫 실적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샘의 이 같은 성장세는 원가 경쟁력과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각 8%씩 2년 누적치로 약 18%의 원가 절감을 이뤘다.

서울 강남구 한샘 플래그숍 논현점에 마련된 신혼집 콘셉트룸에서 모델들이 신혼부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샘 제공

특히 올해 신규 사업품목인 건자재 부문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은 3692억원을 기록하며 신한금융투자 추정치인 3360억원을 10%나 상회했다"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의 매출액 고성장이 이어서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지난 1분기 한샘의 매출은 별도 기준 369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건축 자재 시장의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한샘의 매출 증가율은 22.8%로 예상되며, 올해 건축자재 시장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커진 외형과 성장하는 건축자재 시장에서 한샘의 자재 생산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구체적인 건축자재 시장 진출 계획과 기업인수합병(M&A)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사업부에서 실적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으로 5%를 웃돌았다"며 "특히 부엌 부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5% 성장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한샘에 대한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한샘의 목표가를 종전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신한금융투자도 한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목표가를 기존 1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렸다.

KTB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종전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기존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김은지기자 mini@metroseoul.co.kr

KDB대우證, 550억 규모 DLS 등 7종 모집 KDB대우증권은 최대 연 9.00% 수익률 추구하는 DLS 포함 등 7종을 22일부터 5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KDB대우증권 제공

원조 '차화정' 주춤… 新 '차·화·정' 뜬다

<자동차 화학 정유> <차이나 화장품 정보채널>

국내 화장품 中서 인기몰이 정부 핀테크 육성도 한 몫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국내 대표 화장품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차화정'이 탄생했다. 2009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였다면 2015년은 차이나, 화장품, 정보채널이란 얘기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한 주당 386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연초보다 무려 67%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일에는 장중 403만원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22조7052억원으로 현재 6위다. 시총 규모는 지난 16일 단 하루 만에 9000억원이 늘어 POSCO와 네이버를 넘어섰다. 5위 현대모비스와의 격차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 LG생활건강은 13조9001억원으로 17위, 아모레G는 13조59억원으로 19위에 올라 있다.

화장품이 국내 대표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인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종의 최고 히트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화장품업 호황이 국내 면세점 내 중국인 여행객의 급증에 따른 것이었다면 올해는 국가 브랜드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국내 대표 화장품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주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1인당 화장품 구매액은 지난해 기준 220 달러로 글로벌 평균 대비 6.3배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75%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화장품 구매액은 35 달러로, 대도시 평균으로는 약 100~150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중국의 한국 화장품 소비 패턴을 볼 때, 향후 카테고리 확대와 품목별 소비 증가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중국의 소비 채널은 한국의 면세점에서 중국 온라인 채널로 연결돼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보통신 관련주도 신주도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정보인증 주가는 연초 3500원에서 22일(종가기준) 14300원으로 309%나 뛰었다. 아이에스이커머스도 동기간 366% 오른 8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등이 산업 트렌드를 바꾸면서 주도주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차화정 종목들이 지난 2011년 거품이 빠지며 폭락했던 경험에 따라, 신 차화정 종목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안보미기자

NH투자證 미아지점 韓·中 증시 투자설명회

NH투자증권은 23일 오후 3시 30분 NH투자증권 미아지점 1층에서 국내주식, 중국주식 및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아현주 NH투자증권 포트폴리오 솔루션부 연구원 등이 국내 증시 전망과 중국 증시의 투자전략 등 관심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고객은 NH투자증권 미아지점(02-982-8657) 또는 대표전화(1544-0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기자

삼성SDI 中공장 6월 신설… 편광필름 물량 확대

이재용 부회장 최종 결정, 우시에 편광필름 4라인 신축… 수익향상 기대

삼성SDI가 중국에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 라인을 신설하고 물량 확대에 나선다.

22일 삼성SDI 고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마치고 중국 우시에 편광필름 4라인 신설 계획이 확정 됐다"고 말했다.

삼성SDI의 이번 중국 신규설비 투자는 이달 초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실장(부회장), 권오현 디바이스솔루션(DS) 대표(부회장)의 최종 OK 사인이 났다"고 했다.

편광필름 수요 증가에 따라 삼성SDI는 꾸준하게 중국공장 신설을 검토해왔다. 앞서 지난 1월 2014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송재국 삼성SDI 전자재료 지원팀장(상무)은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삼성SDI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이 있는 중국 쑤저우를 신규 공장 부지로 고려했다. 그러나 현지 지방정부와의 업무소율이 어긋나면서 우시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의 우시 편광필름라인 투자규모는 2100억원 수준이다. 현지법인 설립 후 오는 6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 내년 7월 말 완공 목표다.

중국에서 삼성SDI의 편광필름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의 시너지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시 라인에서는 대형 패널에 대응할 수 있는 광폭 편광필름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자업계는 초고해상도(UHD)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삼성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고급 LCD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08년 32.6인치였던 LCD TV의 평균 크기는 지난해 38.6인치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40인치 이상 TV용 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보다 34%나 성장했다.

현재 삼성SDI는 청주사업장에서 편광필름 1·2·3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물량 대부분을 소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32~55인치 TV에 적용되고 있다.

모듈라인에서 LCD 패널을 검사하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 /삼성전자 제공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지 삼성 SDI의 편광필름 라인은 풀가동 상태"라며 "(편광필름 라인이)증설이 되면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편광필름은 LCD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필수 소재로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원하는 부분만 통과시키는 셔터 역할을 한다. TV는 물론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LCD가 탑재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조현정기자

갤럭시S6·S6 대박이라더니, 판매 기대치↓

출시 전 부터 국내외 언론과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갤럭시 S6 시리즈가 판매된지 12일 지난 시점에 예약판매량에도 훨씬 못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회심의 역작'인 갤럭시S6·S6 엣지는 출시 전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고라는 국내외 언론의 호평과 함께 최고 판매량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됐다. 미디어와 업계 관계자들도 갤럭시S6의 인기로 삼성은 물량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7000만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호평일색과는 달리 갤럭시S6 시리즈에 대한 국내 판매량은 예측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출시됐던 아이폰6의 초기 열풍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이번 달 둘째주(9~15일)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판매량은 총 7만5516대로 22일 조사됐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두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에 달했다. 갤럭시S6 일반 모델과 엣지 모델 판매량은 각각 4만4748대(56.2%)와 3만4838대(43.8%)로 거의 비등하게 나타났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유통점을 통해 유통된 양을 근거로 추정되는 통계치로 예약판매 등 이통사 직판에 의해 유통된 판매량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판매량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6의 초기 열풍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31일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6 시리즈의 경우 출시 첫 주인 11월 1주의 판매량이 아이폰6(12만5937대)와 아이폰6 플러스(3만2242대)를 합쳐 총 15만8179대로 갤럭시S6 시리즈의 두 배 수준이었다.

갤럭시S6 출시가 아이폰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판매량은 3만5000여대로 전주 3만6700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김응연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연구원은 "갤럭시 시리즈는 예상보다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지 않은 까닭에 예약 철회 물량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6·S6엣지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 최근 매체들이 품귀현상 대박 등의 기사를 내고 있어 역시 삼성 홍보의 힘을 느꼈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르포-개관 1주년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가보니

삼성역사 통해 미래 첨단산업 선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 의 풍경은 흡사 대학 캠퍼스를 보는 듯 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자율출퇴근제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하는 직장인과 방문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삼성 디지털 시티에는 국내외 전자산업 혁신의 역사를 담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IM)이 있다. 지난해 4월 21일에 개관한 SIM은 사내와 사외에 걸쳐 있어 일반인 관광객도 유리창 내부에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부를 바라볼 수 있다.

SIM 1층 '발명가의 시대'는 조명, 전기 통신 가전 라디오 등을 주제로 코너가 마련됐다. 조명등 모형 안으로 들어가 영상을 통해 해당기술의 발견과 발명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을 볼 수 있다. 각 테마에 맞게 스위치가 구현된 영상 재생 방식도 독특하다. '가전, 가사로부터 자유로워지다' 코너에서는 두께비(?)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영상이 재생된다.

2층은 '기업 혁신의 시대'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존이 마련됐다. 반도체존의 경우 지구본 한 반도체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이 무엇인지 나온다.

디스플레이존에서는 TV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흑백·컬러TV 등이 전시되고 해당 TV들이 나왔던 시대의 영상물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존에서는 긴 원통 안에 전시된 세계최초 수식어를 달고 있는 휴대폰들과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전시됐다.

삼성전자는 SIM 개관 1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개발을 말하다'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마련했다. 특별전시는 6개 주제로 나눠져 개발자들의 땀흘린 이야기를 소개한다.

1부 '개발을 말하다' 에선 삼성전자의 최초 사례들인 국내 최초 자체 컬러 TV개발(1976년), 국내 최초 64KD램 개발(1983년), 세계 최초 CDMA 휴대전화(SCH-100) 개발(1996년) 등을 당시 사진 중심으로 전시했다.

'2부 삼성전자, 신화에 도전하다' 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TV, 휴대폰 등 대표 제품들의 개발 역사를 소개했다.

3부 '삶의 새 기준을 제시하다' 에선 갤럭시S6와 액티브워시 세탁기 등 삼성전자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제품 개발 관련 사료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6월 19일까지 계속된다.

SIM에서는 역사를 통해 혁신을 배우고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황은희기자

LG전자 스마트폰, 라인업↓ 성능↑

'선택과 집중' 차별화 전략

LG전자가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다.

LG전자는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 라인업을 축소한 반면 제품마다 프리미엄 기능을 적용해 가격대비 성능을 극대화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22일 LG전자 관계자는 "보급형 제품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틀을 깨고 제품마다 특정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G3 파생 모델을 대거(6종) 출시하면서 라인업 확장하는데 집중했지만 올해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제품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 17일 출시한 볼트는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내놓은 제품이다. 20만원대 조지가 제품이지만 3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곡면 기술을 적용해 DMB와 동영상 시청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했다.

이어 22일 선보인 G 스타일로는 50만원대로 5.7인치 대화면과 스타일러스 펜 기능을 적용해 젊은 소비자의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전작 G3 스타일러스가 중남미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만큼 전작 대비 0.2인치 커진 G 스타일로도 5월부터 주요 해외지역에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LG전자가 오는 29일 공개하는 전략 스마트폰 G4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다.

/정은미기자

독일차 기부 인심, 아우디폭스바겐 '왕소금'

작년 영업익 546억원에 기부금 2억원… 0.36% 수준
BMW, 영업익 571억원 중 17억원 기부… 2.97% 최고

국내에 진출한 독일 완성차업체 4사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기부금 인심이 가장 인색했고 BMW코리아가 가장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조2045억원, 영업이익 1221억원의 실적을 냈다.

기부금은 11억원으로 매출의 0.04%, 영업이익의 0.90% 수준이다. 벤츠코리아의 2013년 기부금은 4억원 수준으로 매출 규모에 비해 인색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조2999억원, 영업이익 571억원을 기록했다. 기부금은 17억원으로 매출의 0.07%, 영업이익의 2.97% 규모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다. BMW코리아는 2013년 기부금으로 16억원을 내 3사중 가장 변동폭이 적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조6619억원, 영업이익 546억원을 올렸다. 기부금은 2억원으로 매출의 0.007%, 영업이익의 0.36% 수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에도 2억원을 기부했다.

이 같은 독일차 4사의 기부금 규모는 한국에서 거둔 실적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 아우디 R8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BMW(4만174대)와 벤츠(3만5213대), 폭스바겐(3만719대), 아우디(2만7647대) 등 독일차 4사는 모두 연간 판매 2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매출은 현대차(18조2939억원)와 기아차(9조3112억원)에 이어 빅3에 진입하며 한국지엠(2조5026억원)을 사상 최초로 넘어섰다.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도 국내 매출에서 르노삼성(2조1250억원)을 앞서 5~6위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이익의 40% 수준인 800억원을 배당으로 챙겼다.

매출 상위 10대 수입차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은 8조6258억원으로 전년(6조3110억원)보다 36.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 798억원에서 지난해 1977억원으로 147.8% 급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대주주 배당금을 2013년 173억원에서 지난해 48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다임러 AG와 홍콩 소재 스타오토홀딩스 등 외국법인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소재 아우디AG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4년 설립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BMW홀딩B.V.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BMW코리아 역시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드라이빙센터 운영 등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최근 3년간 배당을 하지 않고 서비스 확대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SKC, 1분기 영업익 613억원… 최대 실적

전년比 94% 껑충

SKC가 17.1%에 달하는 화학사업 영업이익률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고부가 폴리올·프로필렌글리콜(PG) 제품군 고도화와 마케팅 지역 다변화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C는 1분기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매출 7004억원, 영업이익 614억원, 당기순이익 239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22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9% 증가했고 7060억을 기록한 전분기보다는 0.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7% 증가해 분기 영업이익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2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했다.

특히 SKC의 화학사업에서 매출 2380억원을 기록해 1분기 주요실적을 이끌었다. 영업이익 406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7.1%를 기록했다.

SKC 관계자는 "PO(폴리우레탄) 수요증가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로 화학사업 이익이 확대됐다"며 "2분기에는 오는 5월 일본 NOC공장에 PO 수급 확대 등으로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름 사업은 PET시장의 계절비수기 특성을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원인을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보다 영업이익이 개선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SKC관계자는 "필름 사업이 2분기에는 계절성수기 진입에 따른 판매물량이 확대 될 것이고 설비운영 효율화, 생산제품 믹스 개선, 고부가 제품 비중확대 등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vanad@

LG전자 모델이 LG트윈타워에서 대화면 보급형 스마트폰 'G 스타일로'와 그 안에 내장된 '스타일러스 펜'을 선보이고 있다.

보급형 스마트폰도 큰 화면으로

LG전자 'G스타일로'

LG전자가 50만원대 초반의 대화면 보급형 스마트폰 'G 스타일로(Stylo)'를 KT전용으로 24일 국내 출시한다. '스타일로'는 스타일리쉬(Stylish)'한 디자인과 '스타일러스 펜(Stylus Pen)'을 내장한 제품임을 뜻한다.

LG전자는 'G 스타일로'에 프리미엄급 기능들을 대거 탑재했다.

먼저 대화면에서 셀피를 찍고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500만 화소 전면카메라를 적용했다. 또 대화면 스마트폰에 걸맞는 3000mAh 대용량 배터리도 탑재했다.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좋았던 'G 시리즈'의 대표 UX(사용자경험)인 '제스처 샷', '글랜스 뷰' 등도 'G 스타일로'에서 그대로 지원한다.

'G 스타일로'는 펜촉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된 '스타일러스 펜'을 내장해 필기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LG전자는 '인셀터치(In-Cell Touch)' 디스플레이와 더 향상된 터치센서를 적용해 필기감을 개선했다.

22일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G 스타일로'는 대화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LG화학, 북미 ESS시장 공략 가속화

이구아나社와 MOU

LG화학, 이구아나社와 북미 ESS 시장공략 시작LG화학이 북미 가정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해 북미 PCS(전력변환시스템) 업체인 이구아나(Eguana Technologies)사와 ESS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ESS는 PCS+배터리 일체형 제품으로 기존 태양광 패널 설치 가정에 적용이 가능하게 만든 제품으로 구매와 설치비용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LG화학의 배터리와 이구아나의 PCS를 결합한 가정용 ESS 제품을 공동 개발해 올해 3분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북미 시장 공동 대응을 위해 영업-마케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로 LG화학은 가정용 ESS 제품을 신규 개발하고 이구아나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미·유럽 등 해외 시장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구아나는 LG화학의 배터리를 공급 받아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장성훈 LG화학 ESS사업담당 전무는 "ESS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간의 전략적 제휴로 북미 가정용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ESS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확실한 세계 1등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기자

포스코플랜텍-알스톰
복합火電 핵심설비 공급 협약

포스코플랜텍이 22일 발전설비 제조사인 미국 알스톰 파워(ALSTOM Power)사와 배열회수보일러(HRSG) 장기공급을 위한포괄적 협약(Frame Agreement)을 체결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번 계약으로 알스톰이 수주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 필요한 배열회수보일러 제작 물량을 확보하고 알스톰은 품질과 납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게 됐다. 배열회수보일러는 복합화력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로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스팀터빈을 구동시키는 장비다. /정용기기자

현대오일뱅크, 대산 2공장 무재해 결의대회

현대오일뱅크는 22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될 하루 28만 배럴 규모의 2공장 정기보수를 맞아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라고 사측은 전했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유공장은 안정 가동을 위해 2~3년에 한 번씩 공장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설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는 정기보수를 시행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작업 전 동력 및 유해물질 차단 ▲화기작업 시 가스 점검 및 인화성물질 격리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산소농도 측정 ▲높은 위치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등 무재해 조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낭독한 후 안전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정필기자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 '한화 S&C' 핵심

김승연 회장 세아들이 지분 100% 보유
내부거래 줄이기 '관건'… 합병설은 부인

한화 S&C 최대주주 현황

한화S&C
- 250만 주 지분율 50%
- 125만 주 지분율 25%
- 125만 주 지분율 25%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화되며 김승연 회장의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S&C는 한화의 지배구조 이슈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S&C도 그룹 지주사격인 (주)한화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오너 3세의 경영기반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화S&C는 2001년 한화의 정보시업부문이 분사돼 설립된 비상장 정보기술(IT)서비스업체다. 김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가 지분 50%, 차남 김동원 한화그룹 디지털팀 팀장이 25%,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매니저가 지분 25%를 갖고 있다.

한화S&C가 (주)한화와 합병한다면 세 아들은 자연스럽게 (주)한화의 주요 주주가 돼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도 함께 커진다.

합병을 위해서는 한화S&C의 몸집 불리기가 앞서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합병을 할 경우 김 회장 세 아들은 합병한 회사에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실제로 한화S&C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2011년 4만3000원에서 2013년 9만3000원 수준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했다. 매출액 역시 2002년 832억원에서 지난해 9664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합병에 가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이 높다. 높은 내부 거래 비율이다.

한화S&C가 2005년 흑자전환한 데는 한화계열사의 도움이 컸다. 2013년 기준 한화S&C의 계열사 거래규모는 254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5.3% 수준이다. 2010년과 2011년 60.4%와 55.1%, 2012년에는 46.5%를 기록했다. 내부거래의 높은 의존도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한화S&C는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야한다. 한화S&C는 지난해 한화건설과 (주)한화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거래 규모를 각각 22.9%, 42.1% 줄였다. 동시에 매출액은 4116억원, 영업이익은 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8% 감소했다.

실적악화로 한화S&C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경우 김동관 3형제의 승계작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관측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현 상황에서 한화와 한화S&C 합병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한화S&C 관계자 역시 "(한화S&C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사업 영역의 투자에 전력하고 있다"며 합병설을 부인했다.

/김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4K 디스플레이, 스마트폰·PC까지 영역 확장

올 시장규모 180억 달러
작년보다 94% 늘어날 듯

4K(UHD·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TV는 물론 PC, 스마트폰,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제품군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올해 4K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규모는 180억 달러로 지난해(92억 달러)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IHS는 4K 패널의 수율 상승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2020년에는 52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중국 상하이 가전 박람회에 전시한 SUHD TV /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4K 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4K LCD TV 패널이 지난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인 83억 달러를 차지했다. 수익성을 고민하던 TV 제조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 콘텐츠 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이 커졌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져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올해 전체 LCD 패널의 17%에 해당하는 4800만대의 4K LCD 패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TV 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른 IT 기기에서 4K 디스플레이 채택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IHS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서 초고해상도의 장점을 즐기기 시작했다"며 "모니터나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4K 디스플레이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조한진기자 hjc@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ICT·아웃도어 만났다

KT-영원무역 상호협력 MOU

KT는 22일 서울 종로구의 KT 광화문지사에서 영원무역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마케팅 및 사업협력 등의 상호 교류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과 사업 협력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KT는 기업형 Total Biz 솔루션 컨설팅 제공 및 기술지원을, 영원무역은 의류 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휴 마케팅 협력을 진행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파트너인 두 기업의 만남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양사의 글로벌 사업영역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경애 영원무역의 상무이사는 "양사 간의 업무 협약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하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형준 KT 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장 상무는 "이번 영원무역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ICT와 아웃도어라는 서로 다른 산업간 새로운 융합전략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와 영원무역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KT 제공

/정문경기자 hm@metroseoul.co.kr

두산인프라코어, 파리 국제건설장비 전시회 참가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파리 국제건설장비 전시회(Intermat 2015)'에서 세계 최고 배기규제 수준인 유럽 Stage IV를 갖춘 신형 굴삭기와 휠로더 등 총 62 기종을 전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세계 어떤 배기규제도 문제없다

굴삭기 등 62종 전시

두산인프라코어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중 하나인 '인터마트(Intermat) 2015'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이 행사에 올해는 140개 국가에서 20만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실내(4863㎡)와 야외(2500㎡)를 합쳐 총 7363㎡ 규모의 대형부스를 설치해 굴삭기와 휠로더를 비롯해 밥캣 이동식 발전기, 조명장치, 굴절식 덤프트럭 등 총 62 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장비 전시회에 참가한 이래 최대 규모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 배기 규제 수준인 유럽 Stage IV 를 충족시키는 건설장비를 대거 선보인다. 굴삭기 제품에는 장비에 필요한 힘에 따라 엔진 회전수를 최적화 하는 스마트 파워 컨트롤 기능과 공회전시 자동 시동 꺼짐 기능을 기본 장착해 연비 개선을 구현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야외 전시장에서 두산과 밥캣의 통합을 주제로 두산 중대형 장비와 밥캣 소형장비, 굴절식 덤프트럭이 음악에 맞춰 화려하게 움직이는 데모쇼를 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장 입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전시장까지 순환하는 두산&밥캣 브랜드 열차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두산과 밥캣, 포터블 파워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제품 전시로 두산의 글로벌 위상을 보다 확고히 했다"며 "강력한 배기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 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리기자 10sound@

"거문도 참돔 양식업자를 살려주세요"

생산원가 못미치는 가격에 판로도 막혀 어가돕기 한다던 이마트도 재구매 안해

화창한 봄 기운이 절정이다. 하지만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어민들의 마음은 제철을 맞은 참돔이 팔리지 않아 꽁꽁 얼어 붙었다.

참돔은 고단백·고칼슘 식품으로 특히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격이다. 봄부터 여름 4~8월까지가 제철인 참돔은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물고기라 해 옛부터 생일, 회갑 등의 잔칫상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참돔이 어민들에게 불행을 불러왔다.

2012년 ㎏당 1만6000원 정도였던 참돔은 2013년 1만5000원, 지난해 1만500원까지 떨어지더니 올해는 7000~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1㎏참돔 한마리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사료비 9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마저도 판로가 막혀 거문도에만 700~800톤의 참돔이 쌓여 있다.

일반적으로 800g~1㎏의 참돔 한 마리를 회로 쳤을 때 3~4명의 술안주로 적당한 양이 나온다. 때문에 횟집을 비롯한 주요 거래처는 2년 정도 자란 1㎏내외의 참돔을 선호한다. 너무 자란 참돔은 오히려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참돔은 판매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판매가 힘들어진다. 오랫동안 참돔

거문도의 참돔. 참돔은 고단백·고칼슘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격이다.

양식을 해온 거문도 어민들은 "날로 자라는 참돔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한다. 매일같이 오르는 사료비에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산 저가 참돔의 수입, 중국산 참돔 수입 등으로 참돔 양식업자들은 현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참돔의 상품가치는 날로 떨어져 가는데 사료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올 봄이 지나면 이 많은 참돔은 너무 자라 어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난달 27일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대표 김해성·이갑수)는 '어가돕기'라는 이름으로 거문도 참돔 판촉행사를 했다. 4월 1일 메트로신문은 어민을 돕는다는 이마트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참돔을 구입했다는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공교롭게도 이후로 이마트는 추가적인 구매를 하지 않았다.

22일 거문도의 한 양식업자는 "우리가 키우는 참돔은 청정지역에서 양식해서 그 맛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며 "물량은 계속 쌓여가는데 판로가 생기지 않아 근심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참돔 양식업자들은 다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거문도 참돔 구매 문의는 거문도수협(061-666-8020)으로 하면 된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네이처리퍼블릭 제공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 리뉴얼 오픈

5층 외벽 초록색 생화로 자연·사람 어우러진 공간

네이처리퍼블릭이 국내 최고 공시지가(3.3㎡당 2억6631만원)에 자리잡은 명동월드점을 23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명동월드점은 'Beautiful Green'이라는 테마로 5층 외벽 전체를 초록빛 생화로 꾸미는 혁기적인 시도를 통해 도시인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명동월드점이 지난 2009년 출범 때부터 브랜드를 상징해 온 만큼 전면 리뉴얼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약 500㎡(152평) 매장 외부 전체에 5만 여 그루의 사철나무 화분을 총 7주 동안 하나 하나 손으로 심어 자연주의 브랜드 철학을 담았다.

매장 내부 역시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특히 2층은 자연주의 철학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연출했다. 또 매장 중앙에 세면대를 설치해 고객들이 기초·색조 제품 외에 헤어·바디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새로 단장한 명동월드점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완벽한 자연'을 진심되게 전달하고 고객이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국내·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K-Beauty 대표 매장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롯데百, 글로벌 VIP 서비스 강화

해외 제휴 백화점 10개 점포로 확대

롯데백화점은 외국 유명 백화점들과의 VIP 서비스 제휴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현재 외국 6개 점포와 맺고 있는 글로벌 VIP 서비스 제휴를 올 상반기 중 10개 점포로 확대한다.

파트너십을 새로 맺는 백화점은 영국 '헤롯',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마카오 '샌즈 백화점'이다.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기존 뉴욕 본점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점까지 제휴를 확대한다.

이 제휴가 이뤄지면 롯데백화점 VIP 고객들은 총 8개 국가의 10개 점포에서 현지 VIP와 같은 혜택을 누린다.

고객 혜택도 확대된다. 메이시스는 의류 구매 시 제공하던 10% 할인 혜택을 20%로 늘리고 F&B(Food&Beverage) 할인쿠폰과 기념품도 추가 증정한다. 헤롯·샌즈 백화점은 퍼스널쇼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리나베이샌즈 백화점은 마리나베이샌즈호텔 할인과 클럽 라운지 이용권을 준다.

롯데백화점은 2010년 업계 최초로 프랑스의 '갤러리 라파예트'와 VIP서비스 제휴를 시범으로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6개 국가의 유명 백화점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미국의 '메이시스' 뉴욕 본점, 스위스의 '마노', 홍콩 '타임스퀘어', 태국 '시암 파라곤', 싱가포르 '로빈슨' 백화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롯데백화점 VIP 고객이 받고 있는 혜택은 구매 시 10~20% 할인, VIP 라운지 이용과 다과 제공 서비스 등이다.

롯데백화점 이완신 마케팅부문장은 "자체 분석결과 외국 백화점에서 글로벌 VIP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이 그렇지 않은 고객들보다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VIP고객은 비교적 경기에 관계없이 지갑을 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_return@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74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웅진 토마토주스 회수

웅진식품이 토마토주스 '자연은 90일 토마토'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웅진식품은 이달 6~9일 자연은 90일 토마토 제품에서 맛이 이상하다는 소비자 불만 제기가 총 7건 접수되자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지난 16일부터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7일 생산된 제품(유통기한 2016년 3월 6일)으로, 당시 한 탑 소진 물량인 30만개가 생산됐으며 지난 6일 이전까지 이 중 18만개가 팔렸다.

신원회장 조세포탈 혐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조세 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케이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매입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되찾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부인 명의로 된 광고대행사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고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하고 가족·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문화융성

봄 관광주간
가장 좋은 상사는
휴가 가는 상사다

이 좋은 날에 일을 해야지

이 좋은 날에 여행을 가야죠

올 봄, 추억 가득한 당신만의 관광주간을 만들어보세요

[관광주간]을 검색해보세요 (http //spring visitkorea or kr)

1330

“사랑하는 남편의 봄 활력을 응원합니다” 풀무원녹즙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늘부추브로콜리녹즙’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백수오 제품 대부분 ‘가짜’

시중 유통 32개 조사 실제 원료사용 3개뿐

백수오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식용이 금지된 가짜 백수오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32개 중 실제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 제품(9.4%)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로 나타났다.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한 제품이 12개(37.5%),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 9개(28.1%)였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이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이다.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백수오 진위여부 시험결과 (조사 대상: 총 32개 제품)

- 확인불가 8개(25.0%)
- 백수오 3개(9.4%)
- 이엽우피소 검출 21개(65.6%)

백수오 원료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8개 중 2개 제품(원빈 식품)은 제조공정 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가 검출되지 않았다.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해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러한 제품들의 유통 원인은 최근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백수오 2~3년, 이엽우피소 1년),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에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조치를 권고했다. 23개 업체(이엽우피소 검출 21개 업체와 유전자검사가 가능하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2개 업체)가 이를 수용해 조치 완료했다.

다만 내츄럴엔도텍이 원료 회수와 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은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비자원이 분석한 백수오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가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이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백수오 재고 28t은 당사가 요청한 공동 연구나 제3의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13일 법원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29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마스크팩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리더스코스메틱 해외 공략 면세점·드럭스토어 등 입점

마스크팩 전문 업체 리더스코스메틱(대표 박철홍·사진)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리더스코스메틱은 22일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박철홍 대표는 “전세계 코슈메스티컬 시장은 35조원 규모인 반면 국내는 500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화장품 시장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위주로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이다”며 “지난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2000%에 육박할 정도로 회사가 주목을 받았는데 유일무이한 코슈메스티칼 브랜드가 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해외 진출 국가를 확대한다. 인도네시아와 두바이에 지사 설립을 타진 중이며 내년에는 남미와 인도에 진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중국, 스위스, 베트남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유통 채널도 늘린다. 중국 내에서는 기존 온라인 위주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왓슨스·세포라 등과 입점 협의를 위해 접촉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더글라스·세포라 등의 드럭스토어 입점을 논의 중이다. 올해 진출국인 두바이에서도 면세점·드럭스토어 등에 입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우 박민영을 글로벌 모델로 발탁, 국내를 비롯해 중국·유럽 및 미주 지역에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4번째 오픈

강북 진출 본격화

호텔신라(대표 이부진)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서울 강북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호텔신라는 신라스테이를 동탄·역삼·제주에 이어 내달 1일 서대문에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마포구 도화동과 내년초 종로구 수송동 광화문 등 강북지역에 총 3개의 신라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19실 규모(지상 27층, 지하 4층)로 뷔페 레스토랑, 카페, 피트니스, 미팅룸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객실에는 100% 헝가리산 거위털 침구를 사용해 포근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고, 아베다 제품을 객실 내 비치한다.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5월 한달 간 특별 선물이 포함된 ‘그랜드 오프닝 패키지’를 운영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2인 조식, 신라스테이 시그니처 베어로 구성된 상품이다. 가격은 주중 16만9000원, 주말 13만9000원, 공휴일 19만9000원이다(10% 세금 별도).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스테이 서대문은 비즈니스 중심지인 시청, 경복궁·덕수궁·경희궁 등 고궁, 쇼핑의 중심지 명동 등과 가까워 국내외 비즈니스 출장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y@

‘적자 탈출’ CJ푸드빌 외식시장 공략 강화

빕스, 매장 개편으로 재기 비비고 등 해외 진출 속도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의 행보가 거침없다. 경기침체 지속과 외식업 출점 규제 등 악화된 영업 환경에서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매장 확대·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2195억원, 영업이익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112% 성장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3년 347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수익이 개선됐다. 순이익도 50억원으로 120% 상승했다.

업계에선 브랜드 전반에 걸친 경영 효율화 작업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빕스, 뚜레쥬르 등 주요 브랜드의 성장 덕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푸드빌은 그동안 높은 투자 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지난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씨푸드오션과 피셔스마켓, 로코커리 등을 철수시킨 바 있다.

올해 론칭 18주년을 맞는 빅스는 전 매장을 오리지널·브런치·딜라이트로 개편, 신 메뉴를 선보이며 재기에 나섰다. 이는 1세대 패밀리레스토랑인 아웃백, 씨즐러, 마르쉐, 토니로마스 등이 매장을 줄이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것과 대조된다.

제일제면소 광화문점 /CJ푸드빌 제공

뚜레쥬르 역시 그동안 정체됐던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신제품을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꾀한 덕분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뚜레쥬르의 전점 매출은 10%정도 성장했다”며 “순시리즈와 같은 신제품의 판매 호조와 원가절감 및 물류비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뚜레쥬르 전속 모델인 김수현의 중국 내 인기에 힘입어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의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70%까지 상승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매장 수를 436개에서 600여개 정도로 대폭 늘렸다. 커피전문점의 포화 속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한 고품질 커피 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차별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계절밥상, 제일제면소, 더플레이스 등이 때를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계절밥상의 평균 고객 수는 전년대비 9배 이상 늘었다. 아직까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CJ푸드빌은 아울러 신규 브랜드를 여의도 IFC, 판교와 광교의 아브뉴프랑 등 외식 브랜드가 즐비한 곳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비비고, 뚜레쥬르, 빕스 등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CJ푸드빌의 지난해 해외 매장 수는 210개를 돌파했다.

/김보라기자 bora@

삼둥이처럼… 서해바다열차 타고 섬여행 가자

하나개 해변 등 명소 즐비 주말·공휴일 1시간 간격 운행

전국이 꽃으로 물드는 여행의 계절. 도심을 떠나 자연과 벗하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맘껏 스트레칭 해보자. 갯내음 물씬 풍어나는 갯벌은 봄을 만끽하기에 좋은 장소다. 바다로 가는 열차를 타고 떠난다면 금상첨화다.

지난 3월22일 방영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송일국씨와 삼둥이 대한·민국·만세가 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를 타고 무의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졌다.

송일국씨가 "열차타고 배타고 가는 무의도 여행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듯 열차타고 가는 바다여행은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될 좋은 추억이 된다.

공항철도가 6월3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여 간격으로 운행하는 서해바다열차는 무의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용유 임시역이 종착역이다.

역에서 나와 거잠포구와 마시란 해변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낭만의 제방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걸어가면 무의도행 배가 출발하는 잠진도 선착장. 이곳에서 배를 타고 5분여 정도 가면 무의도에 도착한다. 배를 타고 짧은시간이지만 삼둥이네처럼 배 주변으로 날아드는 갈매기떼와 재미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무의도 선착장에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해 하나개해변, 실미해변 및 실미도, 소무의도 등 관광명소로 갈 수 있다.

하나개 해변은 썰물때면 광활하게 드러나는 모래섞인 갯벌에서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을 할 수 있고 '천국의 계단'과 '칼잡이 오수정' 드라마 촬영세트장도 남아있다.

영화 '실미도' 촬영지인 실미도는 하루 두차례 썰물 때 무의도 실미해변과 바닷길로 이어져 걸어서 오갈 수 있다. 무의도 광명항에서 다리로 연결된 소무의도는 섬을 한바퀴 둘러보는 총길이 2.48㎞의 무의 바다누리길은 섬트레킹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사봉(230m)과 호룡곡산(244m)을 잇는 산행은 바다 전망이 뛰어나 많은 섬 산행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서해바다열차: 6월 30일까지 공휴일과 주말에 운행한다. 용유임시역행 하행열차(서울역→용유임시역)는 오전 7시 26분에 서울역을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1분(막차)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서울역행 상행 열차(용유임시역→서울역)는 오전 6시 47분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용유임시역을 출발한다.(각 역 소요시간 등 예정이지 관련안내 참조)
주말에는 인천공항역→인천공항 3층 7번 승강장에서 222, 2-1번 버스로 잠진도 선착장까지
◆잠진도-무의도 선박운임: 왕복기준 대인 3000원 소인 2100원

무의도 하나개 해변 /공항철도 제공

호텔 등급표지 '은빛 별'로 교체

관광公, 디자인 기본안 공개

호텔에 별이 새겨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22일 호텔업 신등급(별)표지 디자인 기본안(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40여 년간 호텔업의 등급표시로 무궁화 문양이 사용되어 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알기 쉽게 지난해 말 표시체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star mark)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안은 이러한 등급제도 개선에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디자인 개발업체인 (유)마농트로에 따르면 동 디자인의 기본컨셉은 유유자적(悠悠自適)으로 "고객들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이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서비스·문화 기반을 갖춘 편안하고 품격있는 호텔"을 지향하면서 한국 선동 기와지붕의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별 형태를 만들었다. 전통적인 구름문양을 별 곡선상에 부분적으로 가미하여 세련미와 운치를 더했고, 바탕색에는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감청식(쪽빛)이 적용되었다. 단 5성급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움 고귀함·웅장미를 상징하는 고궁갈색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말까지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호텔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초 호텔등급표지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5월 중순까지 응용매뉴얼을 개발하여 관광호텔들이 현장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에서 클릭 한번이면 탑승수속 OK

제주항공 '웹 체크인'

제주항공이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웹 체크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탑승권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행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여행객이 붐비는 김포공항 국내선에 적용된다.

웹 체크인(Web Check-In) 서비스는 집에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비행기 탑승 수속을 단축할 수 있다.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LCC(Low Cost Carrier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2013년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탑승객을 대상으로 웹 체크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웹 체크인을 클릭한 뒤 원하는 구간과 탑승객 이름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좌석을 배정받은 다음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QR코드가 인쇄된 인터넷(모바일)탑승권 /제주항공 제공

웹 체크인은 공항에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좌석을 미리 배정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출발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최치선기자 ccheyun@

강강술래, 야외활동 늘자 간편식 매출 '껑충'

곰탕·육포 등 전년比 30%

야외활동에 잦아지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휴대성과 맛은 물론 영양까지 고려한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육포나 곰탕 등 간편가정식 매출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30% 이상 증가했다.

고단백·영양식품으로 야외활동시 에너지 보충원으로 좋은 갈비맛 쇠고기육포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껑충 뛰었다. 조리 후 간편해 나들이 준비에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매출도 37%나 늘었다.

봄나들이에 나선 상춘객 수요에다 등산·캠핑·낚시 등 아웃도어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간편가정식 선호 인구도 중장년층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강술래는 설명했다.

한편 강강술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sgllat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 명품세트(한우불고기1㎏+돈양념구이750g)는 44% 할인된 4만3000원에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kimbr@

산재피해자 연 756명 감소 '산재예방요율제' 효과 톡톡

산재발생 유해 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보다 못한 형'… 현대ENG에 추월 당한 현대건설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 따라잡혀
지배구조 개편서 소외, 주력 건설사도 위협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의 주력 건설사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현대엠코와의 합병 후 급속히 성장해서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의 추월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

22일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건설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958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종속회사를 제외한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절반인 4780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합병 전 현대엠코 포함)이 거둔 44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현대건설 실적의 절반 가까이를 현대엔지니어링이 채울 만큼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성장세는 더욱 뚜렷하다. 합병 법안이 출범한 2분기 이후 현대건설은 1327억원, 1020억원, 1185억원의 영업익을 냈다. 같은 기간 현대엔지니어링은 1227억원, 1121억원, 1212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역전이 시작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현대건설이 4.4%에 그친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7.2%로 2.8%포인트가 높았다.

현대건설이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에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엮여 있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현대모비스가 내주다. 따라서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지분(16.8%)을 매수해야 하는데, 실탄이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재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11.72%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경영권 승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는 곧 그룹 내 핵심 건설사가 현대건설에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유가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22일 74만8900원에 마감됐다. 1년 전 17만3000원에서 332.7%나 급등했다. 이에 반해 현대건설은 1년간 5만60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2.3% 상승하는데 그쳤다. 시장의 우려가 주식시장에서 반영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실적 기준 주당순이익(EPS)도 현대엔지니어링 4만7474원, 현대건설 2812원으로 약 17배의 차이를 보였다.

업계는 두 기업 간의 미래가치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수행능력과 실적이 비슷하다면 지배구조 승계주에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올들어서만도 49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액을 기록하는 등 영업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위 GS건설(32억 달러)보다도 50% 이상 많은 금액이다. 10위권 밖으로 밀려 있는 현대건설(5억 달러)은 이미 멀리 따돌린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차그룹의 주력 건설사가 현대건설에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l920@metroseoul.co.kr

GS건설, 하나금융 통합데이터센터 수주

GS건설이 프리콘스트럭션(Pre-Construction 이하 프리콘) 서비스로 1800억원 규모의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2일 GS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B-11블록에 들어서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신축 공사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프리콘서비스란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가 프로젝트 기획·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 각자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진국형 발주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아이앤에스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7월 GS건설과 프리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과정에 시공사인 GS건설이 참여해 왔다.

계약 방식은 설계 단계에서 발주자·시공자·설계자 공동의 노력으로 협의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시공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S건설은 프리콘 서비스를 토대로 발주자와 국내 최초로 Open Book(회계장부 공개) 방식의 GMP(총액보증한도 계약방식) 계약으로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적정 공사비는 확보하면서 협의된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됐지만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공종간 간섭과 오류를 없애 최적화된 통합설계를 구축했다. 또 발주자가 사전에 사용성과 운영성을 쉽고 정확하게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BIM 솔루션을 제공해 예산 기간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를 완성했다. /박선옥기자

롯데건설 초고강도 콘크리트 수직 압송 성공 롯데건설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150MPa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300m 높이로 수직 압송하는데 성공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수직 압송 성공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1분기 서울 상권 임대료, 강남권 승승장구

1분기 서울 상가시장에서 강남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상권 임대료는 ㎡당 2만5700원으로 전분기(2만5900원) 대비 0.66% 하락했다. 그러나 강남권은 ▲신사 7.9% ▲압구정 5.8% ▲삼성역 5.4% ▲강남역 4.2% 순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신사는 다양한 편집숍과 코스메틱 업종들이 집적 효과를 내고 있다. 춘절(2월 18~22일)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며 상권이 더욱 활발해진 이유도 더 했다. 압구정은 연예기획사와 명품거리가 플래티넘(Platinum) 상권 조성에 힘을 실었다. 삼성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개통이 영향을 미쳤다.

도심권역에서는 종각역만 전분기(9만4600원)대비 5.2% 오름세를 보였다. 종로3가(-7.2%), 종로5가(-8.6%), 광화문(-1.5%)의 상권 임대료는 내렸다. 신촌권역에서는 홍대는 1.9% 상승한 반면 이화여대(-7.0%)와 신촌(-6.7%)은 하락했다. 영등포권역은 영등포역(1.9%)이 올랐고 여의도역(-6.6%)과 영등포시장역(-2.6%)은 내렸다. 기타권역에서는 이태원 임대료가 전분기(3만5500원) 대비 14.9% 상승했다.

이밖에 분당권역은 ▲야탑역(10.4%) ▲정자역(5.6%) ▲수내역(1.5%) ▲판교(1.5%) ▲서현역(-2.8%) ▲미금역(-9.7%) 순으로 임대료가 변동했다.

일산는 ▲수원역(8.5%) ▲마두역(5.2%) ▲백석역(-2.8%) ▲정발산역(-6.7%) ▲마두역(-7.9%) ▲대화역(-8.8%) 순이다.

도시별 상권임대료를 분석하면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서울·경기·대전·대구의 평균 상권 임대료가 내림세를 보였다. 부산은 전분기(2만700원)대비 3.78% 상승했다. 인천은 전분기(1만7900원)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윤정원기자

덕구힐링스파리조트 창립회원 모집

경북 울진군에 있는 덕구힐링스파리조트가 창립 회원을 모집한다. 창립 회원에게는 골든비치리조트 주중 회원권도 제공한다.

덕구힐링스파리조트에서는 데우지 않은 온천수 그대로를 사용하는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 덕구온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응봉산과 덕구계곡과도 가까워 온천리조트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72.6㎡(22평), 85.3㎡(26평), 115.5㎡(35평) 세 가지 타입으로 설계됐다. 입회비는 2800만~4500만원이다.

주중 회원권이 제공되는 골든비치리조트는 최근 3년 연속 엄진디 품질평가 최우수 골프장에 뽑혔다. 2014년에는 강원도 유일 친환경 골프장에, 2015년에는 친환경 골프장 톱 15에 선정된 곳이다.

덕구힐링스파리조트와 골든비치리조트는 약 1시간 거리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9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다. 문의 02)547-6666 /박선옥기자

"순수함 잃은 '약장수' 내 삶과 비슷"

영화 '약장수' 김인권

영화 '약장수'(감독 조치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예전 인터뷰에서 김인권(37)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광대가 되려면 슬픔이 깔려 있어야 한다"던 그의 말이 '약장수'의 마지막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김인권은 '약장수'에서 신용불량자인 일범을 연기했다. 아내와 아픈 딸을 둔 가장인 일범은 대리운전으로 밥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안쓰러운 가장이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직도 쉽지 않은 일범은 친구의 도움으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각박한 현실에 내몰린 이 평범한 소시민과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으며 소소한 드라마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남편을 연기한 적은 있었지만 아빠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세 딸을 둔 김인권에게 일범은 공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캐릭터에 끌린 건 아니었어요. 처음 시나리오는 완성된 영화보다 좀 더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었거든요. 다행히 감독님이 일범의 많은 부분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 경험이 영화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극중 딸 병원비 위해 '광대' 변신 순수함 뭉개는 듯한 분장 울컥해

존재감 욕심 · 열등감이 곧 원동력 예술가 끊임없이 불평할줄 알아야

힘든 현실에서도 순수함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일범은 그러나 불법 강매가 이뤄지는 홍보관에서 자신의 신념과 마주하게 된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홍보관을 찾아온 할머니들에게 아들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던 일범은 아픈 딸의 병원비를 얻기 위해 비열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홍보관 점주 철중(박철민)의 명령에 서서히 굴복하게 된다. 일련의 사건 속에서도 끝내 홍보관을 떠나지 못한 채 돈을 위해 광대로 변신하는 '약장수'의 마지막 장면이 가슴 아픈 것은 실종된 순수함을 웃음으로 억지 승화시키려는 일범의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 촬영할 때 연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기분은 착잡했죠. 분장하면서부터 울컥했어요. 일범이 결국 자기 영혼을 돈에 파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순수한 영혼을 뭉개 버리고 분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울컥함은 순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어요."

김인권은 "나 역시도 일범처럼 때로는 처절하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순수성을 많이 잃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배우가 되기 전에는 순수함과 포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김인권이 마냥 돈만 쫓는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코믹한 감초 캐릭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어떤 연기든 늘 진지하게 임하는 진중한 배우다.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열등감은 김인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연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존재감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아무래도 대본을 받았을 때 제 역할이 작으면 자괴감을 느끼게 돼요.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거죠. 직업병 같은 거라고 할까요? (웃음) 훌륭한 예술가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래 활동한 배우들 중에서는 열등감이 동기가 돼 긴 세월을 이어온 경우도 있으니까요."

'신의 한 수' '타짜-신의 손' '쎄시봉' 등 상업영화에서 코믹한 캐릭터로 존재감을 남겨왔던 김인권은 저예산 영화인 '약장수'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기를 마음껏 펼쳐 보였다. 지금 촬영 중인 '히말라야'에서는 또 다른 존재감을 발휘할 예정이다. "의리를 지키는 산사나이예요. 익살도 좋고 비굴도 발견할 수 있는 캐릭터죠.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star bag

3년 공백 무색 연기력 뽐내

배우 **김선아**가 KBS2 새 수목극 '복면검사' 첫 대본 연습 현장에서 3년 공백이 무색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는 강력반 형사 유민희의 열정적인 성격을 아예 직적 감기는 대사와 애드리브로 표현했다. 작품은 유민희와 속물검사 하대철(주상욱)의 활약을 담은 로맨스 드라마다. '착하지 않은 여자들' 후속 작으로 5월 중 방송.

박중훈과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서형**이 박중훈이 소속돼 있는 젠스타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젠스타즈 관계자는 "매 작품마다 카리스마 있는 명불허전 연기력으로 대중을 매료시킨 김서형 특유의 매력과 에너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형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中 영화제 공식 참석

배우 **김범**이 중국 베이징 옌치호 국제 회전중심에서 열린 제5회 북경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중화권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영화제 참석은 김범이 주연을 맡은 중국영화 '증생애인'이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그는 6월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극 '신분을 숨겨라'로 국내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6월 UMF 무대 올라

미국 힙합 뮤지션 **스눕독**이 6월 12~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MF)' 무대에 오른다.

3000만 장 이상 앨범 판매고를 올린 뮤지션이다. 가수 싸이와 '행오버'로 호흡을 맞춰 국내 팬 사이에서도 익숙하다. 한국 방문에 앞서 내달 새 앨범 '부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장르·영역 한계를 넘나들다

인터플레이(interplay)는 상호작용이라는 뜻이다. 컨버전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사용하게 된 단어다. 이 단어가 미술 영역에도 침범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난 14일 시작된 2015년 현장제작설치 프로젝트 '인터플레이'에는 다국적 예술가 4인이 참여했다. 장소와 장르를 허물고 회화,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서로 개입하는 것을 즐기는 작가들이다. 전시를 기획한 최흥철 학예연구사는 "서로 힘을 합쳐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이끌고 자유롭게 협력한다는 의미"라고 '인터플레이'의 뜻을 밝혔다.

6전시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가변설치 작품 아바프(Avaf)는 작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멕시코와 프랑스에 거주하는 두 명의 작가는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작품을 공유하는 특이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공간과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다.

아바프 작가 크리스토프는 15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번 전시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작품들의 소규모 회고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작품을 재구성해 새로운 공간에 맞게끔 재설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작이지만 "설치된 작품들은 현재이자 지금"이라고 자신했다.

아바프(2015), 월페이퍼 16점, 영상 4분

다국적 작가 4인의 '인터플레이'展 … 8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호주 작가 로스 매닐은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신시제품 수리공과 뮤지엄 테크니션으로 일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의 경험은 작품과 상호작용한다. 그는 "사운드에 대한 관심이 조명으로 빛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빛을 사운드와 비슷하게 다룬다"며 "라든감이나 구조, 소리의 주파수, 광화 등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창고 전시실1에 있는 지니 서의 작품은 음악과 상호작용한 결과다. 수천 개의 합대를 엮어서 만든 공중 구름과 장판지로 구성된 작품 '유선사'는 허난설헌의 시 제목으로 '선계에서 노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미교포 작곡가 유승우가 발표한 현대음악 3부작 중 2부 '허난설헌'의 무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제작됐다.

마지막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다. 일본 작가 신지 오마키의 작품에서 관람객은 신발을 벗고 공간 속으로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수히 많아 매달려 있는 끈 속을 통과하다 마지막에 밝고 하얀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그의 작품 '리미널 에어'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보를 전부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관객만으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작품을 경험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관람객들을 향한 바람을 전했다.

최 학예연구사는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에 일방적 전시에서 관객을 작가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고민했다"며 "문화 혼성론을 배경으로 '장소가 곧 작품'이라는 현대미술의 중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현장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기획의도를 소개했다.

이번 전시는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작용하는 다국적 예술가들의 인터플레이를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8월 23일까지 4개월간 계속된다.

/이유리기자 yuri@metroseoul.co.kr

하지원, 친언니와 24시간 일상 공개

배우 하지원이 첫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도전해 24시간 자신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한다.

22일 열린 온스타일 '언니랑 고고'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카메라가 24시간 들어가는지 모르고 갔다. 집안 곳곳에 거치대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잘 잘 때만은 꺼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원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달라졌다. 나중에는 카메라랑 대화도 했다"며 "지금 사실 조금 불안하다.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여행은 그녀의 친언니 전유경과 함께 하는 여행이다. 프랑스 그리스 지방에 잠시 머물며 현지인의 삶을 체험했다. 28일 화요일 오후 11시 첫 방송. /이유리기자

배우 하지원과 친언니 전윤경

/손진영기자 son@

베테랑 배우 조양자 '친정엄마'로 첫 연극

배우 조양자가 '친정엄마'로 데뷔 후 연극 무대에 처음 오른다.

연극 '친정엄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시골을 떠나 서울에서 사회 생활과 결혼을 한 딸과 딸을 걱정하는 엄마, 딸을 냉랭하게 대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간 사랑을 되새겨 본다.

2012년 공연 후 3년 만에 돌아오는 '친정엄마'는 김수로 프로젝트와 고혜정 작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양자는 박혜숙과 함께 엄마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딸 걱정만 하며 딸을 위해서 궂은 일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 상을 완벽하게 소화할 예정이다.

박혜숙, 조양자

그는 "지금까지 방송만 하다가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서게 돼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우 이경화, 자수연은 엄마의 만부 전화가 귀찮기만 한 딸 미영으로 분해 더블 연기자들과 호흡한다.

연극 '친정엄마'는 5월 30일부터 대학로 예술극장 1관에서 공연된다. /김민준기자 kmh@

두려움이라는 적과 마주한 슈퍼히어로

film review

■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2'는 시작부터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일단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또한 영웅이 다뤄야 하는 이야기도 많고 복잡하다. 자연스럽게 '어벤져스2'는 '어벤져스'보다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를 띠게 된다.

영화의 발단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다. '어벤져스'의 뉴욕 전투 이후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토니 스타크는 외계의 그 무엇도 침입할 수 없는 강철로 둘러싸인 세상을 만들어 지금 이 시대의 평화를 지키는 울트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벤져스 멤버들과 지구는 다시 위기에 빠져든다.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어벤져스'와 유사하다. 거대한 적 앞에서 갈등과 실패를 경험한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시 하나가 돼 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다. 다만 캐릭터의 수가 늘어난데다 이들의 심리적인 고민과 갈등을 모두 다루려다 보니 전편에 비해 산만한 느낌이 든다.

전작보다 늘어난 캐릭터 신경 · 시각적 볼거리 충분

'어벤져스2'가 전작보다 무겁고 진중해진 이유는 이들이 맞서는 적의 정체에 있다. 이번 영화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울트론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슈퍼히어로들이 지닌 내면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적이다. "누구나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만들어낸다"는 울트론의 대사는 영화의 주제를 잘 보여준다. 이제 슈퍼히어로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오히려 지구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지 고민에 빠진다.

그러니 마블 슈퍼히어로들이 제 아무리 고민을 한들 DC 코믹스의 히어로가 될 수는 없다. 드라마에서는 무게감이 더해졌지만 액션에서는 전작을 능가하는 스케일을 보여준다. 동유럽의 가상국가 소코비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의 서울을 지나 다시 소코비아에서 펼쳐지는 액션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한국 관객들이 궁금해 할 서울 장면은 촬영 당시의 떠들썩함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헬렌 조 역할로 출연하는 한국 배우 수현은 분량은 많지 않지만 꽤 중요한 활약을 보여준다.

슈퍼히어로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어벤져스2'는 이야기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4월 23일 개봉.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9-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김소현 "성인되기 전 큰 선물 받았어요"

KBS2 월화극 '후아유-학교2015' 여주인공 고등학교 진학 안 해 대리만족 느끼며 촬영

배우 김소현이 KBS2 새 월화극 '후아유-학교2015'로 대리만족하고 있다.

김소현은 '후아유-학교2015'에서 이은비·고은별 1인2역을 맡았다. 왕따로 살다가 하루 아침에 강남 명문고 세강 고등학교 퀸카가 되는 인물이다.

22일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소현은 "올해 열일곱 살인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홈스쿨링하기로 결정했다"며 "활동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방해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장 좀 막내다. 내 또래 친구들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언니·오빠들과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며 "교복을 입고 비슷한 나이 대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학교를 안 가게 됐으니까 대리만족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소현은 이번 작품을 통해 지상파 미니시리즈 첫 주연을 맡았다.

그는 "날아갈 것 같다. 정말 좋다"며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여주인공을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다. 갑자기 큰 역할을 맡게 돼 믿기지 않는다. 성인이 되기 전 주는 큰 선물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상훈 감독에 따르면 '학교2015'는 여자들 이야기에 중점을 뒀다. 학원물에 미스터리까지 더해 기존 '학교' 시리즈와 차별화를 뒀다.

김소현은 "'학교2013'을 재미있게 봤고 이종석과 김우빈 모두 코멘트 받았다"며 "막막하고 걱정된다. 이번에는 이은비, 고은별 두 캐릭터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 연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후아유-학교2015'는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18세 학생들의 성장기를 이야기한다. 오는 27일 첫 방송된다.

/장소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KBS2 새 월화극 '후아유-학교2015' 김소현. /KBS 제공

TV 하이라이트

동양정신에 심취한 서구인들이 찾는 것

◆ KBS1 '특집다큐 2부작 – 세계인, 동양 정신에 길을 묻다' 오후 11시40분

2부작 중 1부 '푸른 눈의 구도자들'이 방송된다. 가혹한 자기 수련과 명상을 통해 자아를 찾고자 하는 프랑스인 엘비스, 한국 불교에 귀의하고자 미국에서 건너온 헨리, 의심 많은 과학도에서 성직자로 거듭난 러시아인 미하일 등 동양의 사상인 불교에 심취해 있는 서구인들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 JTBC '썰전' 오후 11시

새롭게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오르고 있는 '머슬 글래머'의 매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대세 여슬녀 3인방 중 한 명인 미스코리아 출신 트레이너 정아름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과 '애플 힙'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운동법을 공개한다.

◆ tvN '뇌섹시대 – 문제적남자' 오후 11시

'지인 특집' 1탄이 방송된다. 6개 국어가 가능한 지인부터 뇌뿐만 아니라 몸까지 완벽한 지인까지 문제적 남자들을 긴장시킨 지인의 정체가 공개된다. 전현무는 영어 힌트를 듣고 사자성어를 맞추는 뇌 풀기 문제로 영문학과의 자존심을 보여준다.

◆ EBS1 '다문화 고부열전' 오후 10시45분

'한 지붕 두 며느리' 베트남 검사돈 이야기 편이 방송된다. 억척스러운 천하무적 시어머니와 철없는 며느리들의 갈등은 경기도 시흥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이어진다. 경거루 즉 고부의 콤플렉스 극복을 위해 며느리와 고향 하이퐁으로 떠난다.

/정리=이유리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5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50 생방송 오늘 저녁	15 생방송 투데이	10 톡! 톡! 보니하니 (3324회) 35 코코몽 3 25 [illegible] 45 [illegible]	00 [illegible] 25 Real Fun World 30 쉽톡 슈퍼톡스 (영어 한국어) 50 Real Fun World 2 재방송 55 시경마을 디가(한국어)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20 오늘부터 사랑해 (4회)	15 불굴의 차여사 (76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2회)	00 [illegible] 35 EBS 뉴스 50 [illegible]	10 시경마을 디가(한국어) 25 내 친구 아시(영어) 35 Real Fun World 3 40 내 친구 아시(한국어) 55 두기 삼총사(영어)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116회)	30 [illegible] 55 다녀와 [illegible]	55 압구정 백야 (133회)	0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5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 4 10 두기 삼총사(한국어) 25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21시	00 KBS 뉴스 9		50 기억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5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illegible] 35 [illegible]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18회)	00 앵그리맘 (12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18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경청의 배우는 강의 (책 무 더 [illegible])
23시	10 KBS 뉴스라인 40 세계인, 동양정신에 길을 묻다	10 해피 투게더	15 [illegible]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illegible]	
24시	30 [illegible]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illegible]	35 나이트라인	15 [illegible]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17회)	30 최고의 교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회)	10 코미디 빅리그 (17회)			30 [illegible]	◆ 프로야구 낮 [illegible] 한화 vs LG (SKY TV) 두산 vs 넥센 (MBC SPORTS+1) 롯데 vs KIA (SPO TV+, SPO TV) 삼성 vs NC (KBS N SPORTS, SPO TV2) SK vs KT (SBS SPORTS, IB SPORTS)
19시	00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14회) 30 오늘 뭐 먹지? (13회)	00 세계로 가는 [illegible]	40 [illegible]	
20시	50 JTBC 뉴스룸	40 SNL 코리아 시즌6 (10회)	00 오늘 뭐 먹지? (15회) 30 올리브쇼 2015 (13회)	00 [illegible]		
21시	40 내 친구의 [illegible] (11회)	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5회)	30 [illegible] 시즌2 (4회)	00 [illegible] 도그 위스퍼러 6 [illegible]		
22시			00 올리브쇼 2015 (13회)	00 세계로 가는 [illegible] (3회)	00 [illegible]	
23시	00 썰전 (112회)	00 문제적 남자 (9회)	00 오늘 뭐 먹지? (16회) 30 오늘 뭐 먹지? (13회)	00 [illegible] 3부		
24시	20 [illegible] (23회)	20 [illegible] 4회	00 [illegible] 30 [illegible]	20 [illegible]	00 [illegible]	

만루 상황서 볼넷… 정범모 왜 1루에 송구를

스포츠 주간 해프닝

밀어내기 볼넷이 나온 상황에서 포수가 1루쪽으로 공을 던졌고, 추가점을 헌납했다.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LG 트윈스 경기. LG가 2-0으로 앞선 5회말 2사 만루에서 좌타자 이진영과 맞선 한화 선발 쉐인 유먼은 풀카운트에서 6구째 회심의 직구를 던졌다. 심판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를 말했다. 한화 포수 정범모는 상진을 잡았을 때처럼 공을 1루로 던졌다.

하지만 심판 판정은 '볼넷'이었다. 밀어내기 볼넷으로 쉽게 한 점을 얻은 LG는 3루를 밟은 정성훈이 홈까지 내달려 추가 점수를 뽑는 기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기록상 포수의 송구 실책이다.

정범모와 김성근 한화 감독은 "심판 콜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우효동 구심은 "난 볼소리로 '볼'을 했다"며 "나는 '볼, 사이드'라고 말했다. 볼이라고 말했으니 인플레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KIA 최용규의 황당한 어필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KIA 타이거즈 경기. KIA는 0-1로 뒤진 6회 선두 타자 김한울이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박기남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기회를 잡았다.

최용규의 타석 때 상대 선발 레일리의 폭투가 나왔다. 김한울은 3루에 안착했다. 이때 최용규가 김성철 구심에게 사구를 주장했다. 레일리의 공이 바닥에 튀면서 자신의 발을 스쳤다는 것이다.

다행히(?) 김성철 구심은 사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타석은 아이간 최용규는 삼진 아웃됐고, 후속 타자 브렛 필이 좌익선상 안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때려내 KIA는 동점에 성공했다.

정범모

과르디올라

김기태 KIA 감독은 "1사 3루가 됐다. 최용규의 어필이 받아지면 3루에 간 주자는 2루로 귀환해야 한다. 최용규가 왜 어필을 했는지 궁금하다. 아직 상황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웃었다.

◆ 과르디올라의 격렬함, 바지도 못 버텼군

21일(현지시간)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과르디올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바지가 찢어져 속옷이 전 세계 전파를 탔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FC포르투(포르투갈)와의 홈 2차전에서 6-1로 대승했다. 뮌헨이 전반부터 FC포르투를 강하게 몰아붙여 5-0으로 앞서 가던 때 과르디올라 감독의 찢어진 바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왼쪽 허벅지 위의 박음질 부분이 주머니 위에까지 터지면서 그의 허벅지와 착 달라붙은 짙은 푸른색의 속옷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르디올라는 평소 선수들에게 다소 격하게 지시하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터치라인 부근에서 토마스 뮐러와 로베르트 르완도스키 등 선수들에게 몸짓으로 격렬하게 지시하면서 찢어졌다.

과르디올라의 격렬한 지시에 그가 입은 특씨 바지마저 견디지 못한 것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첫 타점·멀티히트 강정호 터졌다

유격수 수비도 무난 추신수는 4타수 무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이틀 연속 선발로 경기에 출전해 3타점 2루타로 타점 신고를 했다. 메이저리그 첫 타점, 첫 장타(2루타), 첫 멀티히트다.

2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에서 강정호는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5로 맞선 7회말 2사 만루에서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싹쓸이 중월 2루타를 때렸다.

앞서 2-3으로 뒤진 4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첫 타석인 2회말과 6회말에는 땅볼로 물러났다.

전날 3타수 무안타 1삼진에 그쳤던 강정호는 이날 삼진 없이 4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을 0.077에서 0.176(17타수 3안타)으로 끌어올렸다. 유격수로서도 무난한 수비력을 보였다.

강정호의 2루타로 7회말까지 8-5로 앞섰던 피츠버그는 8회초 1점, 9회초 3점을 잃고 8-9로 역전패했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의 타율은 0.152에서 0.135(37타수 5안타)로 떨어졌다. 하지만 텍사스는 애리조나를 7-1로 꺾고 2연패 사슬을 끊었다.

/장성호기자 seoingh@

한화 정근우 1군 복귀 허벅지 통증 이시찬 엔트리 제외

국가대표 2루수 정근우(33·한화 이글스·사진)가 1군에 복귀했다.

정근우는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원정경기를 앞두고 1군에 합류했다. 정근우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한화 2루수로 뛰었던 이시찬(30)은 허벅지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정근우는 스프링캠프에서 턱관절 부상을 하고 4월 초 목과 등에 통증이 생겨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상태로 재활 훈련을 받았다. 타격과 수비, 주루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그는 21일 서산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를 통해 최종 점검을 했다. 타석에서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3이닝 동안 2루 수비를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김병호기자

21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확정지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뮌헨·바르셀로나 나란히 챔스리그 4강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준준결승 FC포르투(포르투갈)와의 홈 2차전에서 6-1로 크게 이겼다.

지난주 원정 1차전에서 1-3으로 져 탈락 위기에 내몰렸던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대승으로 1·2차전 합계 7-4로 FC포르투를 따돌리고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FC바르셀로나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2-0으로 꺾고 4강에 합류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홈경기 승리로 1·2차전 합계 5-1로 8강을 끝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네이마르가 전반 14분과 34분에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한 바르셀로나는 최근 8년 사이에 7차례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는 꾸준함을 과시했다.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UEFA 챔피언스리그 등 전 경기를 통틀어 30번째 골을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이청용 U-21 경기서 득점포

1군 복귀를 눈앞에 둔 이청용(27·크리스털 팰리스)이 21세 이하팀 경기에 출전해 골을 터뜨렸다.

이청용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남동부 찰턴에서 열린 찰턴 애슬레틱과의 21세 이하팀 경기에 출전해 전반 10분에 골을 넣었다.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이날 21세 이하팀 경기에 출전해 한 차례 골대를 맞추기도 하는 등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였다. 이청용은 후반 15분 교체됐고,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이청용은 24일 찰턴과의 경기에 다시 출전해 마지막 실전 점검을 한다.

/김민준기자

대법원 선고 임박… CJ 이재현 회장 쟁점은

조세·횡령·배임 특가법 위반 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지난달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재 이 회장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자 이 회장측은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늘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대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해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 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모두 1657억원을 탈세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두 달 뒤인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비록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다행히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자금 603억원횡령 부분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분위기는 침울하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선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 등이다. CJ측과 이 회장이 원하는 결과는 집행유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탄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이 회장의 가석방도 녹록지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 된 상황에서 현재 이 회장이나 CJ그룹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최치선기자 nhisunb@metroseoul.co.kr

	1심	2심	비고
조세포탈			
국외 차명주식 관련 1심인정 약 186억원 / 2심인정 약 177억원	유죄	유죄	
CJ㈜ 비자금 조성 관련 약 33억원	유죄	무죄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관련			
<Naystan 등 이용> 약 215억원	무죄	유죄	증거불충분
<Prime performance 이용> 약 1000만원	무죄	무죄	증거불충분
<Tondige 이용> 약 38억원	무죄	무죄	증거불충분
<Tiger Galaxy 이용> 약 40억4000만원	유죄	유죄	
횡령			
CJ㈜ 법인자금 약 603억원	유죄	무죄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
CJ China 법인자금 약 71억원	유죄	유죄	
CJ! 법인자금 약 36억원	유죄	유죄	
배임			
일본 빌딩 매입과정 1심 약 363억원 / 2심 약 309억원	유죄	유죄	

1심 (약 1341억원 유죄, 약 234억원 무죄) 징역 4년 벌금 260억
2심 (약 574억원 유죄, 약 837억원 무죄) 징역 3년 벌금252억

박상옥 인준 표류…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 처리 지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22일로 65일째를 맞았다.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아 이틀 이상 공석이 된 경우는 2000년 이후 9차례에 이른다. 한 달 이상 공석이 발생한 경우도 6차례다. 최장 기간은 117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김병화 후보자 낙마사태 논란이 일면서 길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 제청돼 2012년 11월 9일 취임 때까지 장기간 재판업무 지장을 빚기도 했다.

박시환 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도 늦어졌다. 이들이 퇴임하던 2011년 11월 당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의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다.

2부에는 삼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모여 있지만 대법관 공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연미란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성완종 최측근 박준호 긴급체포

증거인멸혐의…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상무가 긴급 체포됐다. 박 전무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전 상무는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경남기업 이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식참고인 조사를 받은 첫 인물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때문에 박 전 상무가 참고인 조사 첫 소환에 응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경남기업 측의 증거인멸 시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긴급체포 절차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인멸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미란기자 actor@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